

지역 매아리



고창군, 축산농장 안내판 규격화 깨끗한 축산 농장 만들기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가마다 제작 각으로 설치했던 축산농장 안내판을 규격화·통일화하면서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역점 시책으로 시행 중인 축산농장 안내판 지원사업이 통일된 안내판과 농가들의 참여로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농가의 변모에 기여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개소의 농장에 안내판이 설치됐으며 농가와 주변 주민의 호응도 매우 좋아 올해도 군비 등 3000만원을 투자해 20개소의 농장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안내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판을 지원받는 농가는 농장 진입로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단 등 경관을 조성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정활동의 의무가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의식교육을 통한 농장주변 환경정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명품축산농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농장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제휴카드 조성기금 전달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는 6일 부안군을 방문 2017년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4,088만 원의 기금을 부안군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부안군에 전달했다.

지난 6일 NH농협 부안군지부는 2006년도부터 부안군과 제휴카드 약정을 체결하고 부안군이 각종 공무를 위해 사용한 보조금 카드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카드 등 카드이용액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부안군에 지원해 오고 있다.

배인태 지부장은 "NH농협 제휴카드의 사용액 증가로 더욱 많은 기금이 군 발전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NH농협이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사랑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7개 분야 53개 사업 1499억원

정읍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 의결

정읍시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53개 사업 1499억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5일 농업 분야 기관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종분과, 축산분과, 임업 유통분과와 정책분과로 나뉘어 53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경종분과는 영농 규모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8개사업 606억원, 축산분과는 조

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353억원이다.

또 임업유통분과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 화사업, 조립·순 가꾸기 사업 등 19개 사업 114억원, 정책분과는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등 11개 사업 4억 2600만원이다.

시는 이날 의결된 사업을 전복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2019년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신청된 모든 사업이 한 건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31일 간 한국농어촌공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 것이다. 시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자 선정과 우선 순위를 심도 있게 심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도시 이미지 개선·쾌적한 가로환경 만든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구간 간판 정비 추진



정읍시가 도시 미관과 거리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간판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시가 도시 미관과 거리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간판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구간 간판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역 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을 지

나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70m 구간 150여 개 업소의 간판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간판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도(2억원)와 행안부(4억원)에서 주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되는 것

로 모두 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정읍역 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까지 200m 구간 50여개의 간판을 정비했다.

이후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해 정읍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550미터 구간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일정한 높낮이로 조정하고 거리의 특색과 업소별 특성을 간판의 서체와 색채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거리 내 점포주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회를 열어 인근 상가인 '연지상가 상인회'의 역량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건물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명품 간판으로 정비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피해자 보호 현장 지원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해당기능은 물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상해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을, 가정폭력 등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폭력, 스토킹 등 범죄 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신변보호 신청인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전문 심리케어 기관에 연계 하는 등

협업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이버 인권 교육 수강 독려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박원성 부청장은 "현장 관계인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고 민경이 하나 되어 보다 실질적 협업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보건소, "신학기 학교 감염병 주의력"

고창군(군수 박우정) 보건소가 각 학교 개학 기간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1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저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발생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 몸에 발진성 물집이 1주일 가량 발생하는 질환으로,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귀 밑 침샘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2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두 질환은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고, 봄철 시기에 증가하는 만큼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수두는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유행성이하선염(MMR 포함)은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해야 한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주의보 기간이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단체생활은 감염병 집단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며 "3월 개학으로 학교 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농어촌 하수도 정비 쾌적한 환경 조성

고창군이 상하면 동촌 신림면 서월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환경부 등 예산부서를 찾아가 열악한 실정을 설득하여 하수도 국가예산 176억원을 확보했다.

상하면 동촌지역은 용정리와 장호리 일원의 23개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 오염원을 정화하고 서해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신림 서월지역은 벽송리 자

포리 일원의 23개 주택을 대상으로 갈곡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연취탁지의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하천의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 할 수 있게 되어 명품 고창군의 청정하 바다와 강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 12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오는 2019년 공사에 착공해 2020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립도서관, 독서마라톤 대회 열어

정읍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제2회 독서마라톤대회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건전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책 읽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형태의 책읽기 경주이다. 이날 5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는 독서마라톤 대회에는 정읍지역 초·중·고등학생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코스를 선택해, 선택코스마다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은 후 독

서마라톤 홈페이지에 200자 이내의 감상문을 등록하면 기록이 인정된다.

원주자 모두에게는 구간별 원주 증서와 메달이 제공된다. 또 서관 대출권 수가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늘어나고, 특히 원주한 시 공무원에게는 상시학습 시간이 인정된다.

더불어 오는 9월 1일 개최 예정인 2018 정읍시 달빛 독서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추후 시상식을 통해 독후감 우수자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tree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 500ml 2ea/12%, 375ml 5ea/13%'.